

내가 언제 그랬어?

(알코올성 건망증)

지금부터 약 7,8 년 전 술병(病)을 좀 고쳐 달라며 35세 된 남동생을 서울의 어떤 갱생원으로 부터 찾아서 데려온 부인이 있었다.

그 남동생은 결혼도 못 하고 그 누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 매일 같이 술타령만 하고 일도 안 하는 터라, 누나가 언제나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다. 남편은 “저런 술만 처먹는 비렁뱅이가 내 처남이라니 창피해서 죽겠다”며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.

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본 남편이 격분하여 “에라 죽어라”며 삼으로 머리를 후려갈겨 버렸다. 놀란 누나와 그 남편 사이에 부부 싸움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불쌍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X-Ray도 찍어 보고 께매 주었다. 그날 밤 환자는 ‘삐쳐서’ 집을 나가 버렸다.

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어느 날, 어떤 갱생원으로부터 “동생을 찾아가라”는 연락이 왔다. 그곳으로부터 그를 ‘꺼내 온’ 누나는 고민 끝에 부랴부랴 서둘러 술병 고쳐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결심으로 큰마음을 먹고 병원까지 후송해 온 것이었다.

데리고 오는 차안에서 친지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다. 이유인 즉 언제나 침통하고 비관적이기만 하던 그가 병원에 오는 동안 제법 세상을 달관한 듯, “그 동안 뭐하고 지냈느냐?” 하니, “세상사는 이치가 다 그런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?” 하다가, “비행기 타고 놀러 갔다 이제 왔다”며 농담(?)을 한다는 것이었다.

자신이 한 달 동안 수용되어 있었던 문제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임직도 한데 전혀 그럴지 않고, 병원에 입원시킨대도 그저 그러냐는 대답이었다고 한다. 그래서인지 보호자들은 내심으로 “굳이 입원을 안 시켜도 될 듯한데 데리고 왔다”는 표정을 감추고 있었다.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보호자들은 경악하고, 환자를 입원시키고 돌아설 때 그 누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. 진료실에서 그 환자는 “어제까지 누나 집에서 일 하고 있었습시다”하다가, 머리의 흉터에 대해서는 “아, 보름 전에 제가 충청북도에 갔었는데요, 거기서 꿀병이를 잡다가 바위에 부딪쳤지요”라고 하였다. 잠시 뒤에는 같은 질문에 “어제 한강에서 개구리를 잡으려다가 다쳤어요”라고 종잡을 수 없는 대답을 거침없이 뱉어 냈기 때문이었다.

이 환자는 10대 때부터 과음을 해 왔었고, 그 동안 수차례의 진전 섬망을 겪었으며, 마침내 알코올 금단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의 부랑자 수용소에 방치된 후 알코올 건망 증후군으로 발전해 버린 상태였다.

알코올 건망 증후군이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뇌가 알코올에 ‘녹아 감으로써’ 생기는 단기 기억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무서운 병이다. 이 상태에 들어가기 전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급성 중독, 금단 증후군, 진전 섬망의 상태를 수회 이상 경험한 경력이 있다.

이 때 환자는 그럴 듯한 말을 만들어 내는 작화증(作話症, confabulation)을 특징적으로 보이며, “여기 저기 쏜다”고 하는 말초 신경 장애, 어디에 있는지,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지 모르는 지남력 장애를 보인다.

이 환자는 매일 아침 회진하며 인사를 건네면 마치 잘 아는 사람을 만난 듯 “안녕하세요?”하지만, “내가 누구지요?”하면 “저기 우리 집 골목 앞에서 슈퍼 하시지 않습니까?”, 또는 “에이, 다 아시면서 뭘 물어 보십니까?”라는 대답으로 다른 환자들을 웃기곤 하였다. 그런 상태는 입원 후 한 달 이상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.

필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알코올 건망 증후군 환자 또 한 사람은 면담시간에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.

“선생님, 저는 요즈음 죄책감에 잠을 못 잡니다. 제가 월남전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. 그 사람들의 영상이 저를 괴롭힙니다. 그 때 작전 중에 베트남을 생포했는데 살려 달라는 것을 제가 죽였어요.”

그는 또 평평 울면서,

“그 때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. 하지만 지금도 그 베트남의 눈빛이 아른거려서...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”라며 오열하였다.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그 환자는 일찍 생긴 ‘술병 때문에’ 군대라고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. 그는 이튿날은 자신이 말했던 ‘월남전의 무용담’은 기억조차도 하지 못 했다.

이 환자들은 적극적인 신경과적, 정신과적 치료 후에 약 25 % 정도만 회복되고, 나머지 중 상당수는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되어 간다. 알코올성 건망 증후군이 ‘뇌가 녹아서 혼란스러운 상태’라면 알코올성 치매는 ‘다 녹아서 텅 빈 상태’라고 할 수 있다.